

코스타 어바인 성황 “Calling: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한인 청년 컨퍼런스
세대를 넘어 하나 된 예배
KOSTA World in Irvine 집회

한인 청년 컨퍼런스 ‘KOSTA World in Irvine’ 집회가 9월 18일 (목)부터 20일(토)까지 어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Calling: 내가 선 곳, 거룩한 땅”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20일 저녁 집회에서는 아이자야 씹스티원(Isaiah 6tyone) 리더 조성민 간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날 조성민 간사의 찬양인도와 참석자들의 은혜를 향한 갈망으로 집회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올랐다.

조 간사는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메시지를 시작했다. 그는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앞선 장들에 온갖 사연이 담겨 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디아스포라 한인 청년을 위한 코스타 집회가 “Calling”이라는 주제로 어바인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됐다. ©기독일보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을 말하며, “마치 한국에서 이민 온 세대와 현지 세대 사이의 갈등처럼, 당시 교회 안에는 율법 문제

와 선민의식으로 인한 충돌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라며 복음의 본질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 간사는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갈등을 지적하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속에 이방인들을 ‘굴러온 돌’로 여겼고, 예배 역시 전통과 형식에 머무르며 삶과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한 복음 교리 위에서 진정한 예배와 연합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마서 12장 1절의 ‘몸을 드리라’는 권고에 대해 “영적인 예배란 갈등과 분열 속에서 나를 낮추고, 서로 품으며,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주 시드니에서 자라며 한인교회를 다닌 경험을 나눴다.

그는 “한인교회가 왜 갈등을 겪는지 잘 안다. 그러나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리다. 교회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품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모든 세대, 1세대와 1.5세대, 2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참된 영적 예배가 세워질 줄 믿는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기자

찰리 커크 부인 “예수께서 그러셨듯 살해범 용서한다”

9월 21일 애리조나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서 개최

찰리 커크의 아내인 에리카 커크가 남편의 추모예배에서 살해범을 용서한다고 밝혔다. 이 예배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렸으며, 수만 명이 현장을 찾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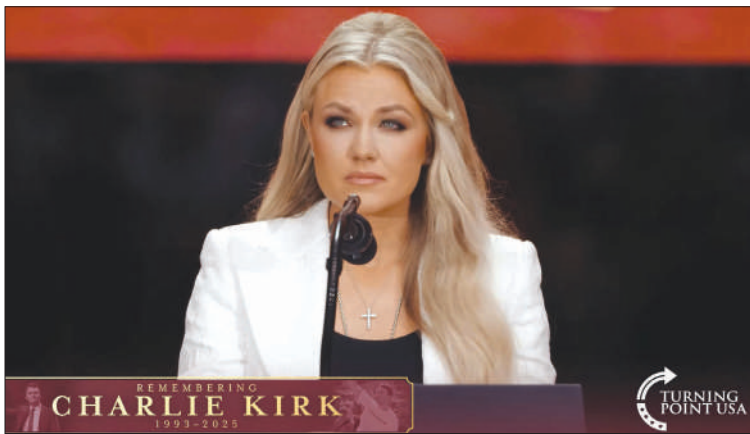
이날 추모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터닝포인트 USA(TPUSA) 및 TPUSA Faith 직원들, 커크의 목사, 보수 성향 언론인들과 기독교 아티스트들이 참석했다.

에리카 커크는 남편을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을 공개적으로 용서한다고 밝히며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주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도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찰리가 했을 일이기 때문이다. 미움의 해답은 미움이 아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답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리카 커크는 남편이 2년 전 TPUSA 아메리카페스트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8)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는 “하나님은 결국 찰리의 그 고



애리조나 글렌데일에서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렸다. ©TPUSA

백을 받으셨고, 이제는 그를 주님의 곁으로 부르셨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편이 총격으로 쓰러진 뒤 병원에서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번진 미소를 보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찰리가 고통 없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였다”며 “남편의 죽음을 이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펼쳤고, 오랜만에

기도했으며, 평생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에리카 커크는 남편의 삶이 가정 회복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결혼관을 전하는 데 헌신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편은 언제나 진정한 남성됨을 도전했고, 그리스도인의 남편은 섬기기 위해 이끄는 사랑임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의 남성들에게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하며,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성들에게도 도전을 던지며 “여성은 덕스러워야 하며,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다. 우리는 가정의 수호자이며 격려자”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간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무료 설치 서비스
FREE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아들의 심장병... 고난은 이해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TV기독교일보 ‘늘 새롭게’에서
주님세운교회 신용환 목사 간증

TV 기독교일보 유튜브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에서 관윤영 집사와 이성일 목사가 주님세운교회 신용환 목사를 초청해 신앙과 목회 여정을 나눴다. 신 목사는 모태신앙의 은혜, 자녀의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한 고난, 목회자로서의 여정과 비전 등을 다.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셨나요?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랐고, 중·고 등부 시절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했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막내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셨고, 부모님의 기도와 지지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새벽마다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회심의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내가 진짜 신자인가, 가짜는 아닌가”라는 질문 앞에 눈물과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의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앙 여정에 특별한 굴곡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결혼하고 나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100일이 되었을 때,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굴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20년 동안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난이 은혜’라는 것,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심검지 않게 하시려고 매운맛을 보게 하신 거죠. 그 매운맛이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앞드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시려면 어떤 통과리례처럼 고



(왼쪽부터) 주님세운교회 신용환 목사와 ‘늘 새롭게’ 진행자 관윤영 집사와 이성일 목사. 신용환 목사가 목회와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십자가 신학 자체가 고난의 신학
고난을 공감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삶도 없고, 십자가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아
하용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 요약하며 설교 훈련, 목회적 회의가 찾아왔을 때, 아내가 든든한 버팀목

난을 뚫고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나요?
이성일: 고난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만 특별히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니까요.
신용환 목사: 우리 신학, 십자가의 신학 자체가 고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고난을 공감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삶도 없고, 십자가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 거죠.
제 아이가 처음 중환자실에 있다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를 겪을 때, 그 아픔에 대한 공감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녀가 아

픈 부모를 만나면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여보, 고난이 이렇게 유익하네. 우리가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나니, 이것이야말로 목회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위로다”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드님의 신앙은 어떤가요?
제 아들 준재는 저희보다 더 신앙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간증도 합니다. 첫 직장을 얻고 받은 월급 전액을 ‘첫 열매 헌금’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돕고 싶다”고 말할 정도예요. 부모로서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두 번째 아이의 탄생
사실 저는 첫째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둘째는 갖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도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엘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쓴물 이후 하나님이 인도하신 엘림처럼, 우리 가정에 축복의 선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군중병 시절의 설교 훈련
저는 군중병으로 수도방위사령부(옛 수경사)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군목 목사님이

부재 중이셔서 제가 설교를 담당했는데, 경험 없이 보니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가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사다가 요약해 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평생의 설교 훈련이 되었고,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목회 여정과 회복
올해 3월 16일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이전에는 선한청지기교회 부목사로 시작해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고,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또 송병주 목사님 곁에서 7년간 사역을 배우며 성장했고, 나성한미교회에서 6년간 담임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목사가 전통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적 회의가 찾아왔고, 결국 안식년을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내가 1년간 가정을 책임질 테니 당신은 쉬고 회복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버 운전도 해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목회자로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
목회는 실력이나 간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느낍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력을 주셨기에,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눈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부한인회 한인 축제 & 케이팝 콘테스트 성료

LA북부한인회(회장 박승목, 이사장 김정석)는 지난 9월 20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추석 맞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 사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함께 즐기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에는 가야금 공연, 판소리, 사물놀이, 딱지치기, 소고춤, 제기

차기, 난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올해는 K팝 열풍을 반영해 ‘K팝 데몬 헌터스’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돼 초등학교생들이 참가해 ‘골든(Golden)’을 열창했고, 한 어르신도 함께 참여해 인기상을 받았다. LA북부한인회는 추석행사 외에도 청소년센터, 교육문화센터, 시니어센터, 학부모센터, 소셜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과 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시니어를 위한 ‘청춘대학’도 운영 중이다.
문의: (818) 864-6856
주소: 522 Foothill Blvd., La Canda, CA 91011

2026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수여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망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103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134,200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이 처음 출범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3,146,600입니다.

-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 (소속기관) 증명서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기관 담당 교사)
-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생 & 근로복지금: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5년 12월 5일(금)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5년 12월 30일(화) 개별통보함
- **수여식**
2026년 1월 19일(월)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무실) www.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229-0001 | Email: admin@milalsca.org

900명 가득한 강당을 흥해처럼 나눈 기적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건 아닐까. 외국인과 대화를 하려면 외국어를 배워야 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그 언어를 배워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4시간, 6시간 쉬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1일(주일) 엘바인온누리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송지은과 유튜버 박위(위라클)를 초청해 찬양과 간증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18-20일) 엘바인온누리교회에서 코스타 월드가 개최된 가운데, 이 둘 부부가 코스타 월드의 게스트로 참여해 간증을 전한 바 있다.

송지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수로 활동했던 송지은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며, “교회는 신나는 공간이었다”라는 말로 간증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보상에 주신다’는 생각을 품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가수의 꿈을 품고 있던 그는 20살에 걸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하며 화려한 무대에 섰지만 그녀의 신앙은 점점 세상의 인정과 관심을 쫓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송지은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박수와 사랑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졌다”며 “필요할 때만 교회에 나가는 양다리 크리스천으로 7년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던 중 회사와의 갈등으로 2년간 활동이 중단되고,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던 그녀는 한 지인의 초대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성경책 한 권 다 읽으면 웬지 나를 만나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안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구절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지은아, 나 여기 있어’라고 손을 흔드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걸 깨달았죠.”

그 후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답을 들으며 자존감을 회복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이들, 하나님이 어디계신지 모르겠어, 나에게만 대답을 안 해주셔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성경을 펼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지은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특별한 영화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코스타 월드 집회를 위해 남가주를 방문한 박위와 송지은이 엘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때 간증을 나누었다. © 엘바인 온누리교회

박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친구들의 사랑”

이어 박위 형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11년 전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했고, 지난해 송지은과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지난 9월 21일(주일) 엘바인온누리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송지은과 유튜버 박위를 초청해 찬양과 간증 집회를 열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놀라울 만큼 재활이 잘 되었지만, 신앙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다”며 “다시 걷게 해 달라는 기도를 매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냉랭해지고 예배의 기쁨을 잃었다”고 회상

예수님 앞에 누이듯, 딱 그 상황이었어요.”

기도가 시작되자, 친구들이 그의 운뭉, 머리, 어깨, 허벅지, 발가락, 종아리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실체를 알려주셨다. 그 중보기도의 실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셨다.

그는 전신마비로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오기 때문에 소변줄로 소변을 배출해야 하고, 그로인해 세균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세균감염으로 신우신염 걸려 투병한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나를 케어 줄 수 있는 내 가족이 이제 내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져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 고통 속에 떠오른 것은 십자가였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한편, 엘바인 온누리교회 KM 청년부는 10월 5일(주일) WELOVE(위러브) 초청 찬양집회를 4시에 본당에서 개최한다.

조혜련 집사의 ‘CGN 오심쇼 성경 세미나’는 10월 5일(주일) 1시 30분에 개최한다.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2025년도 사랑장학생 모집

모집기한 10/1-10/31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사랑장학회(대회장 노상일, 부대회장 김민수, 이사장 노창수 목사)에서 2025년도 현재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및 타커뮤니티 학생, ◆ 해외 선교사 자녀로 미국내 대학(원) 재학생, ◆ 미국내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가 추천하는 해당 선교지의 현지인 신학생이며, 장학금은 1인당 \$2,000이다. 단 선교지 현지인 신

제 18기 사랑장학회 KDSF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 10월 1일 (화) - 31일 (목)
신청방법: www.kdsfsarang.com
(사랑장학회 홈페이지)
신청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고등학생,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대상에서 제외)

학생, 커뮤니티 컬리지 또는 가족 공동 수상자는 별도로 책정한다.

신청은 10월 1일~10월 31일까지, 합격자는 12월 초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하며, 수여식은 12월에 있다.

신청은 사랑장학회 홈페이지(kdsfsarang.com)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사랑장학회 사무국(kdsf@sarang.com)으로 하면 된다.

한편, 사랑장학회에서는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를 9월 29일(월) 오전 11시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Los Coyotes Community Club)에서 개최한다.

조셉 리 기자

크리스천 부모 세미나

가정신앙전수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PCCE에서 온라인 크리스천 부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10월 16일(목) 저녁 7시(미서부시간)에 ‘교회학교, 다음세대, 가정을 살리는 새로운 말씀-소그룹-설교 패러다임’을 주제로 진행된다.

조성우 교수(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Ph.D.)가 강사로 섬기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대상은 목회자, 학부모, 교사이다. 신청은 QR 코드나 링크로 하면된다.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CfvHn-iOkQA3kY0CfWWXlp9VpOxTA-jcsklgMudam2zcf5w/viewform>

부모, 다시 그리기
“나는 어떤 부모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나요?”
자녀의 눈에는 나는 어떤 부모로 보이고 있는가?
어떤 세상이 원하는 부모가 되고, 우리 자녀는 원하는 새로운 자화상을 그려 그려야 할 것인가?

2025. 10.16 (목) 7:00 PM (미서부시간)
참가신청자에게 Zoom 참가번호 보내드립니다.

신청 QR

[forms/d/e/1FAIpQLSdCfvHn-iOkQA3kY0CfWWXlp9VpOxTA-jcsklgMudam2zcf5w/viewform](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CfvHn-iOkQA3kY0CfWWXlp9VpOxTA-jcsklgMudam2zcf5w/viewform)
PCCE : pcce.wmu.edu/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풍성한 혜택 가을스페셜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 11월 달라스서

미주 한인교회를 위한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11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텍사스 달라스 세미한교회(이은상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월드사역연구소, 세미한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21세기 교회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목회자들의 실제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월드사역연구소는 예배(Worshiping Church), 소그룹(Oikos Church), 지역 사회 섬김(Reaching-Out Church), 복음 전파(Life-Giving Church), 제자 재생산(Discipling Church)이라는 5대 영역을 하나로 묶어 W.O.R.L.D. Ministry라는 사역 패러다임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교회 개척과 선교지 사역, 제자 양

육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매뉴얼과 우수 사례를 전 세계 교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최병락 목사(월드사역연구소장,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이은상 목사(월드사역 미주소장, 현장 사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목회 현장의 경험과 실행 가능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55세 이하 담임목회자 35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되며, 참가비는 \$150이다. 1차 신청 마감은 10월 15일(수)까지이며, 세미나 참가자는 회원 교회 선정 자격이 부여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세미나 문의 및 신청은 214-433-5347 또는 이메일(semihanwm@gmail.com)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새로운 사역 패러다임을 배우고 나누며, W.O.R.L.D. Ministry와 함께 미래 목회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일시: 11월 17일(월) - 20일(목) (목요일 성령집회에 필수참여)
장소: 달라스 세미한교회
강사: 최병락 목사, 이은상 목사, 월드담당 사역자
대상: 만 55세 이하 담임목회자 35명 (회비 \$150) 세미나 중 호텔, 식사 포함, 항공료 별도
문의: 214-433-5347
semihanwmi@gmail.com

개척교회와 함께하는 가을 부흥회

오는 9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생수의강선교교회(최형규 목사)에서 “부흥: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주로 개척교회와 함께하는 가을 부흥회가 열린다.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가 강사로 섬기며, 우리가교회(김은광 목사), 샘솟는교회(고영문 목사)가 함께 찬양으로 섬기게 된다. 김민선 기자
9/16(금) 저녁 7:30
9/27(토) 새벽 6:00, 저녁 7:00
9/28(주일) 오전 7:45, 11:30
주소: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큰빛교회 창립 26주년 감사예배

애나하임에 있는 큰빛교회(조현영 목사)는 오는 10월 5일(주일) 오후 3시 창립 26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김민선 기자
문의: (714)325-7577
주소: 630 N. Anaheim Blvd, Anaheim, CA 92805

월드미션대 영성 수련회, 전 세계 재학생 함께 참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는 9월 12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영성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WMU는 바이올라 대학의 토드홀(Todd Hall) 교수가 구성한 “영성 개발 지수(Spiritual Transformation Inventory, STI)”를 기초로, 지난 5년간 전 세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 자신과 이웃과의 연결, ◇ 하나님과 연결, ◇ 영적 커뮤니티와 연결, ◇ 영적 훈련들과의 연결,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란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다.

강사로는 송경화 교수, 노진준 목사, 김기석 목사, 박영선 목사가 함께 했으며, 올해는 서울여자대학교 장경철 교수가 함께했다. 이번 영성 수련회에서는 영성 개발지수(STI)의 최종 훈련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경철 교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통의 기반 위에서 타인의 고통을 향한 공감을 통해 확산된다”고



‘영성’을 강조해온 월드미션대학교는 영성수련회를 개최했다. WMU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해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된다.

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희생의 사랑으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따르면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함께한 모든 재학생은 이 영성개발지수(STI) 훈련의 최종 과제로 실천 프로젝트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된다.

본인의 교회나, 교회 밖에서 소외된 자들 혹은 장애우, 선교지의 선교사 중 섬겨야 할 한 그룹이나 개인을 찾아 그들을 한 달 동안 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일기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날 함께한 학생들은 “감격과 눈물,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평안한 예

배와 말씀과 토론, 그리고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 교수님들과 예배당과 각처의 많은 학우님들과 연결된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이론이나 설교가 아닌 생각과 기억 속에서 또 오늘이 시간에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격려와 위로를 얻었다”라고 소감을 나눴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학생처장 윤임상 교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됐지만, 공간을 초월해 실시간으로 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신비를 경험했고, 찬양과 강연, 주제 토론, 성찬식과 기도회 등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현장 대면 못지않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 행사는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삶 속에서 실천에 참여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제 9016차 두란노아버지학교 LA 목회자 17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

일시

첫번째 만남 10월 12일 (일) 오후 5시 : 아버지의 영향력 : 박세현 목사
두번째 만남 10월 13일 (월) 오후 5시 : 아버지의 남성 : 김기섭 장로
세번째 만남 10월 14일 (화) 오후 5시 : 아버지의 영성 : 서보천 목사
네번째 만남 10월 19일 (일) 오후 5시 : 아버지의 사명 : 권 준 목사

온라인 등록

bit.ly/FS_P17

장소

세계선교교회 (김창섭 목사)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문의

고광호 목사 310-896-6483
성요셉 목사 818-331-2481
(문자로 문의해주세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싶다면

더 황영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
in **BUENA PARK**

**2025. 11. 03** (월)

**오전 10시 샷건**
오전 9시까지 체크인

**골프 대회 참여 정보**

참가비

\$180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80명 한정
간단한 도시락 & 디너 식사 제공

참가대상

만 64세 이상 시니어

대회주소

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오늘의 스코어? 선물 한가득 가져가셨습니다~**

> 행운의 홀인원 첫 주인공 **\$10,000** 현금 지급

> 아시아나 LA - 한국 왕복 항공권

> 다이아 목걸이

> 골프 용품 & 상품권

> 스파 이용권

> 부페 식사권 등등

총 **\$2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실력과 상관 없이 참가자 전원 모두에게 함께 나눕니다!

*상품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품 목록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참가 문의 (888) 847 - 3098
월 - 금 / 9 AM - 5 PM

주최/주관  **센터메디컬그룹**

예장 합동, 교인 수 224만여 명… 전년대비 소폭 감소

예장 합동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진통 속에 장봉생 목사(제109회 부총회장, 서울노회 더가족서대문교회)가 총회장으로, 정영교 목사(남경기노회 산본양문교회)가 부총회장으로 각각 당선됐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오전회무가 속회되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 주관으로 임원선거를 진행하려 했지만, 다수 총대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됐다.

이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결국 장봉생 목사와 정영교 목사 등 단독 후보들에 대한 당선이 선포됐다. 이후 서기 후보를 추천받기 위한 모임으로 인해 회무는 오후까지 정화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본래 부임원이 정임원직을 승계받지만, 앞서 선관위는 제109회 부서기인 서만중 목사의 서기 후보 탈락을 결정했다.

합동총회에 소속된 교인의 수가 2024년 기준 224만2,844명으로 집계됐다. 그 전년도인 225만530명에서 7,686명(-0.3%)이 준 것이다. 이 같은 교세 통계는 합동 측 제110회 정기총회 자료집에 실렸다. 합동 측은 22일부터 서울총현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수는 1만1,788개로



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 전년도인 1만1,832개에서 44개(-0.4%)가 줄었다. 반면 목사 수는 2만5,410명으로 그 전년도인 2만5,141명에서 269명이 늘었다.

총회 새 임원진 구성이 개회 이틀만인 23일 저녁회무를 끝으로 모두 완료됐다. 보통 총회 첫날 새 임원들이 취임해 회의를 이끌어왔던 것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오전회무에서 진통 끝에 임원 단독 후보들이 선출됐고, 서기와 부서기만 복수 후보들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서기 선거에선 기호 1번 김용대 목사가 779표를 얻어, 400표에 그친 기호 2번 신종철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부서기 선거

에선 기호 1번 유병희 목사가 661표를 얻어, 522표에 그친 기호 2번 이상협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로써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새 임원진은 △총회장 장봉생 목사 △목사부총회장 정영교 목사 △장로부총회장 홍석환 장로 △서기 김용대 목사 △부서기 유병희 목사 △회록서기 안창현 목사 △부회록서기 이도형 목사 △회계 남석필 장로 △부회계 안수연 장로다.

임원 선거가 이토록 길어진 건, 부총회장 선거에 임후보했던 고광석 목사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 심의 끝에 탈락한 것 때문이었다. 고 목사가 속한

동광주노회를 중심으로 선관위 결정에 불만을 품은 총대들의 항의가 이번 총회 개회 후 여러 모양으로 표출됐다. 이런 진통 끝에 새 임원 조직을 완료한 뒤 선거에 불만을 표했던 한 총대가 나와 다른 총대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총회 이튿날 회무는 상비부조직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셋째날인 24일, 감사부가 총회 인준신학교인 서울신학교 총회 인준 취소를 청원했으나, 이를 바로 받지 않고 1년 뒤 총회에서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감사부는 “서울신학교는 총회 헌법과 학교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84세의 학장 김모 목사에게 의해 학사 운영 및 재정 운용이 전횡(專橫)되고 있다”며 “서울신학교는 첫째, 총회 인준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둘째, 불법 대출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고, 셋째, 사유화되었고, 넷째, 위장교회와 담임목사 사칭 등의 불법이 난무한 상태이므로 총회의 인준을 취소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후 서울신학교 동문회 회장이라는 한 총대가 발언권을 얻어 총대들 앞에 나섰다. 그는 “서울신학교가 참영망이었다. 감사부가 감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최근 동문회 증경회장들이 모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전에 (서울신학교) 학장님과 이사장님을 만나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장과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며, 모든 (학교) 운영권을 동문회에 넘기면 동문회가 외부에서 신실한 학장을 세우고 이사회를 새로 조직해 잘 운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신학교는 20년 가까이 전통 있는 학교다. 현재 재학생이 50명이 조금 넘는다. 전통 있는 학교의 인준을 취하한다는 건 학교에 부끄러운 일이지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인준 취소 여부 결정을 1년만 연기해주시면 잘 준비해서 내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한 총대가 나와 “총회 인준 신학교의 학장을 동문들이 세운다는 건 총회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나왔던 동문회 회장 총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결국 총대들은 바로 인준을 취소하지 않고 1년 더 지켜보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통합 110회 총회 ‘여성 총대 할당제’ 부결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길 목사) 제110회 총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총회 첫날 개회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정훈 부총회장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장 7절, 엡 4장 31-32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본질을 놓친 것인데, 사랑보다 율법이 앞선 데 있다”며 “마태복음에선 마지막 때엔 불법이 성하므로 사랑이 식는다고 나왔다. 곧 회칠한 무덤처럼 탐욕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현상도 이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는 할렐루야의 모임이 돼야 하며, 이것의 첫걸음은 용서”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 곧 490번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의로워서 용서받은 게 아닌, 죄인 됐을 때 용서받고 의인이자 칭함을 받았다.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



총회가 열리는 모습.

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할 일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며 “사랑은 따지지 않고 덮어주고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이다. 교회는 의로움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곳이다. 세리와 창기들도 회망을 발견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경직 목사는 템플턴 상 수상 당시 ‘나는 죄인이다. 신사참

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졌다”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실존의 한계를 한탄했던 바울이었다. 사랑의 첫걸음,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를 실천하는 길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총회장 김영길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이어진 뒤 총회장 김영길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가 마무리됐다. 총회 첫날 신임 총회장에

정훈 부총회장이 추대됐다.

정훈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 본 교단은 예전 한국교회 위상을 회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본 교단은 올해 표어를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정했다. 우리 사회 갈등이 고조되는 이때 남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상대 의견을 좀 더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며 “이 죄인 괴수에게 총회를 섬길 자리는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최선을 다해 섬김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겠다. 낮은 자세로 총대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에는 각각 단독 출마했던 권위영 목사(서울숲교회)와 전학수 장로(진주대광교회)가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다. 권위영 목사는 정견 발표에서 “한국교회 소그룹 모임이 흔들리고 있

다. 소그룹을 강화하여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대원 입학 정원이 미달된다고 하여 아무 목회자를 뽑을 수 없다. 양질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둘째날 오후 회무에서는 여성 총대 할당제 폐제가 부결됐다.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총회 총대 10인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 총대 1인 이상 총대로 파송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총대 990명이 참석한 투표 끝에 찬성 494표 반대 496표로 찬성이 과반수가 되지 못했다.

올해 제110회 총회에 파송된 여성 총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500명 중 57명이다. 노회 69곳은 모두 10인 이상 총대를 파송했다. 하지만 여성 총대를 보낸 노회는 36곳 미만이었다.

정훈 총회장은 “내년 봄 정기노회에 총대를 파송할 경우 각 노회는 더 많은 여성 총대를 보내달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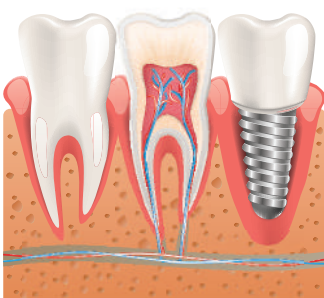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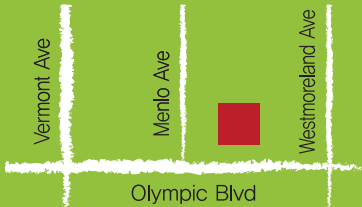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메디칼그룹의 마음을 모아,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AI 공존시대, 교회 역할과 가치관 확립 절실”

한국실천신학회, ‘AI 시대와 실천신학의 과제’ 주제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실천신학회(회장 박은정 교수)가 20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AI 시대와 실천신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97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명주 박사(AI안전연구소 소장)가 ‘AI 공존시대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AI 시대, 기독교인의 사명과 교육

김 박사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며 긍정적 효과로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 △업무 효율 증진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 △소통과 연결 기회 확대 △교육·학습·고용 기회 확장을 제시했다. 반면 부작용으로는 △디지털 신기술의 비가역성 △기술적 대응의 한계 △윤리와 법률적 대응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인용하며 “AI 공존 사회와 현상에 대해 바른 수용 기준과 가치관이 필요하다”며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역할로 △AI를 더 깊이 보는 시각 배양 △기독교인의 ‘빛과 소금’ 역할 수행 △AI 공존 현상을 통한 문화적 접합점 탐색 △교회다운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꼽았다.

김 박사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미래 인재의 역량”이라며 △협업 인성 △글로벌 환경 적응 △학습 능력 △변화 수용 능력 △미래 파악 안목 △생각하는 능력 △도구 활용 능력 등 7대 역량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지금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며 “또한 바른 윤리 제시를 통한 시민 역량 증진이 기독교인의 임무”라고 했다. 이어 “AI가 미래 직업 생태계도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회는 공동체와 성경 중심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



한국실천신학회 제97회 정기학술대회 참석자 기념 사진.

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I가 개인의 삶을 갈수록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 나아갈 길을 인도받아야 한다. 영성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 중에서도 차별화된 기본 역량”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길형락 박사(서울신대)가 ‘AI 시대의 기독교 예배 감각을 통한 예배의 미래’ △조성현 박사(부산장신대)가 ‘AI 설교의 명암 설교의 본질과 정의를 통해 ChatGPT의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 △박종환 박사(실천신대)가 ‘시간의 성화 트랜스휴머니즘의 시간과 예전적 리듬’ △박한나 박사(주안대)가 ‘AI 메타인지적 거울이 있는가 감정구조 상담이론 기반의 이마고 데이와 선교제 제자도의 실천신학적 탐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AI 시대, 신학적 분별과 창조적 상상력 통해 예배의 새로운 지평 열어가야”

김형락 박사는 “AI 시대에 기독교 예배가 맞이하게 된 도전과 기회는 단순히 새로운 도구의 등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예배의 본질, 곧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

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박사는 교회가 AI 시대에 붙들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예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라는 신학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둘째로 AI를 예배에 활용할 경우 전통과 신학적 깊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창조성과 연속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기독교 예배는 탈육화의 위험과 풍성함의 가능성이라는 두 축 사이에 놓여 있다”며 “교회는 AI 시대를 단순한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학적 분별과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예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AI 설교, 본질적 한계 인식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조성현 박사는 “챗 GPT로 생성된 설교가 많은 효용성과 유익이 있다. 그러나 설교의 본질과 정의의 입장에서 본 챗 GPT로 생성된 설교에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과 협력은 하지만 인간 설교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한 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챗 GPT는 설교자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설교자들이 늘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날 설교자는

인공지능 설교의 명암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 협업적 설교와 영성적 설교라는 대안을 통해 사역을 이어갈 때 강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성화된 시간 회복해야”

박종환 박사는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제거하고 시간을 최적화하며 미래를 예측하려는 기술 문명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그 결과 기도의 시간, 공동 애도의 시간, 신앙적 대화의 시간 등이 단절되고, 인간은 실시간 반응만을 반복하는 존재로 정체화되고 있다. 이는 교회와 전통적으로 형성해 온 성화된 시간, 즉 창조와 구속, 기억과 희망, 반복과 영원의 리듬을 근본적으로 해체한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성화된 시간 이해를 제시했다. 그는 “성화된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하고 종말론적 소망이 작동하는 시간으로, 인간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기다림과 반복, 고통과 침묵, 성령의 은밀한 임재를 통해 체화되는 은총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천신학은 세 가지 실천 방향에서 성화된 시간의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며 “첫째, 디지털 시대의 시간 감각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목회적 교육과 예배 실천의 구조화이며, 셋째로 공동체적 시간 감각의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시대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신학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그 시간을 함께 살아내는 존재라고 답해야 한다”며 “회복해야 할 것은 시간 자체

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며, 이 만남은 반복과 기다림, 쉼과 리듬이라는 작은 신앙적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AI는 보조 도구… 궁극적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뤄져”

박한나 박사는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7),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등 제자들의 내면을 직면하게 하는 메타인지적 초대를 그때와 지금의 때에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며 “이는 감정 없는 지식 습득이 아닌 ‘감정 구조의 복음화’로서의 제자도를 보여준다”며 현대 교회가 감정을 신앙적 언어로 덮어버리는 영적 우회를 넘어서는 필요성을 말했다.

박 박사는 “ESCT(감정구조상담이론)가 감정을 복음화의 대상으로 보고 제자도 실천의 기반으로 삼는다”며 “ESCT는 실천신학, 상담심리학, 신경과학, 내러티브 이론을 통합하여 △성경적 인간 이해 구체화 △기술과 여성의 건전한 통합 △목회 상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정 구조를 회복하고 방어 패턴을 직면하는 과정은 단순 정서치료가 아니라 회개, 구속, 변화와 성화의 영적 여정이 될 수 있다”며 “AI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인간 상담자, 신앙 공동체, 성령의 역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ESCT 기반 AI 상담의 실제 적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장기적 치료효과 검증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문화적 맥락과 다양한 신앙 전통에서의 감정 구조 차이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며 “감정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 구조를 이해하고 회복하는 것은 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콩고서 기독교인 대상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학살 급증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학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참사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벌어졌다고 22일보도했다.

지난 8일,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 동부민주군(ADF)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이 북키부 주 마구레지파 생

조셉 본당의 은토요 마을을 습격해 최소 64명을 살해했다. 가해자들은 총기와 망치를 사용해 희생자들을 공격했고 민가가 불태워지는 등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ADF는 이집트와 달리 국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ISIS, ISIL)와 연계된 지역 지부를 자처하며 활동해온 조직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공

격 가운데 하나다. 지난 8월 중순에도 북키부 지역에서 ADF 공격으로 기독교인 5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7월에는 기도 모임 중이던 43명이 살해됐다. 올해 초에는 개신교 교회 안에서 70명의 기독교인이 참수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부템보-넨 교구의 멜키세데크 시클리 팔루코 주교는 가톨릭 자선단체 ‘고통받는 교회 돕는 이들(ACN)’을 통해 성명

을 내고 “이번 끔찍한 학살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과 신자들에게 영적 위로를 보낸다”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평화를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팔루코 주교의 발언은 나이지리아의 빌프레드 아낙베 주교의 경고와도 일맥상통한다. 아낙베 주교는 올해 초 영국 상원에서 증언하

면서,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성탄절과 같은 기독교 축제 기간에 학살이 ‘관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현재 기독교 박해 심각성에서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35위에 올랐다.

최승연 기자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인도 기독교회, 의료 사역 회복 촉구
“취약 지역에 교회 존재 강화해야”



디팍 싱(Deepak Singh) 박사는 지난 9월 17일(현지시간) 나그푸르에서 열린 AICOCIM에서 연설하며, 교회가 의료로 교회의 소명을 표현하는 핵심 요소로 삼고 소외 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을 촉구했다. ©CDI

인도 기독교회 선교회의 제3일차 오전 세션이 ‘보건’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디팍 싱 박사는 인도 교회가 의료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 박사는 어린이 외과 전문의로, 다년간 에마누엘 병원 연합(EHA)에서 활동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EHA의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다. 그는 “교회는 의료 선택적 활동이 아닌 부르심의 핵심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이를 진지하게 따르다면 나라의 건강 문제에서 손을 뗄 수 없다”고 말했다.

싱 박사는 인도 기독교 의료의 역사를 초기 선교사 진료소부터 전국 병원 설립까지 추적했다. 그는 많은 병원이 낯선 지역에서 헌신한 여성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들의 노력이 벨로르와 루디아나의 기독교 의과대학 등 인도 주요 의료 기관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독립 당시 개신교 선교회는 1,000개가 넘는 병원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재정과 인력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그럼에도 싱 박사는 남아 있는 병원 네트워크가 인도 의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병원들은 현대 의학을 인도로 가져왔고, 의사와 간호사, 보건 전문가를 양성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윤리적 의료를 제공했다. 이 유산은 재확인할 가치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싱 박사는 인도 의료 시스템의 격차를 지적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예방 가능한 질병, 모자보건 문제,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부담, 영양과 기아 문제, 완화의료와 장애인 서비스 부족 등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격차는 단순한 문제만이 아니다. 교회가 연민과 진실성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도시 중심의 의료 제공에서 벗어나 농촌 등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교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싱 박사는 큰 병원 건립뿐 아니라 클리닉, 이동 의료팀,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 등 소규모 이니셔티브도 의미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싱 박사는 주류 의료 체계에서 소외된 분야, 즉 완화의료, 장애인 재활, 노인 서비스, 정신 건강 분야에서 기독교 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재활과 소득 창출을 결합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엄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싱 박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교 병원과 직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돌보는 이들을 돌보겠는가? 교회가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박사는 차세대 리더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를 단순한 직업이 아닌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도록 교회가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미경 기자

英 기독 언론인, 이민 반대 집회
현장서 폭행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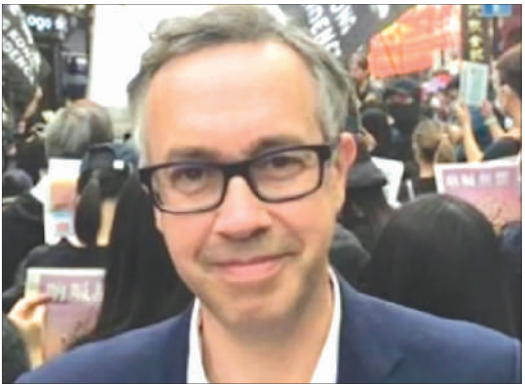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통일 영국’(Unite the Kingdom) 집회 현장에서 기독교 언론인이 군중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피해자는 프리미어 크리스천 뉴스의 기자 데이비드 캄파날레(David Campanale)로, 현장을 취재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일부 시위자들에게 둘러싸여 밀침과 쏙뼛, 물리적 폭행까지 당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파날레 기자는 사건 직후 “내가 단지 취재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군중이 적대적으로 반응했다”며 “언론의 자유와 진실 보도를 가로막는 폭력적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집회에서 우파 활동가 토미 로빈슨(Tommy Robinson)이 무대에서 발언을 했고, 기독교적 정서와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장면을 보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로빈슨은 영국디펜스리그(English Defence League, 이하 EDL) 설립자 중 하나다. EDL은 이슬람 극단주의 및 이슬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중심으로 반(反)이슬람 운동을 펼치는 단체다. 로빈슨은 소셜미디어,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이슬람에 대한 비판, 이민 반대, 표현의 자유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집회 규모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참석



▲데이비드 캄파날레 기자. ©X/David Campanale

인원을 경찰은 약 10만~15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일부 주최측과 반대자들은 실제로는 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으며, 폭력 사태로 경찰과 시위자 모두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런던 경찰에 따르면, 26명의 경찰관이 돌과 물병 투척, 신체적 충돌로 부상을, 그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 25명의 시위자가 체포됐다.

영국은 유럽에서 영국해협을 건너 몰려오는 이민 문제로 국론이 한창 양분돼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불법으로 부실한 보트를 타고 해협을 건너 오는 이민자들에 대해 찬반 양론이 갈린 채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불법 이민 남성은 이후 런던 교외에서 14세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더 격화되면서 여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엔 01:00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부기도일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참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에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영양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에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열매를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9-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찰리 커크가 남긴 유산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든 삶



아치 케네디. ©Christian Post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아치 케네디의 기고글인 ‘문화가 성경적 진리를 증오 발언이라 부를 때’(When culture calls biblical truth hate speech)를 21일 게재했다. 아치 케네디는 신앙과 문화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 평론가이자 블로거, 연사로 활동하고 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최근에 우리가 찰리 커크에게서 본 특별한 점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성경적 진리에 굳건히 섰지만 동시에 자비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커크는 당대하게 토론했으나 결코 악의를 품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도 반대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야말로 필자가 그의 사역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었다. 오늘날 문화가 성경의 진리를 “증오 발언”이라고 낙인찍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자비와 함께한 진리의 유산

찰리 커크는 토론을 다른 이를 모욕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다. 그는 토론을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하는 기회로 보았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잘 요약했듯이, 커크는 성경에 대해 조금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자비를 드러내며서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드물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불신자들은 그를 가혹하거나 증오에 찬 사람으로 보이게끔 짧게 편집된 밈이나 반쪽짜리 인용구를 퍼뜨리곤 했다. 그러나 전체 대화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커크의 목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그의 말을 왜곡하고 잘라내어 전달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다.

성경적 진리가 증오로 낙인찍힐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일부가 “증오 발언”으로 분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결혼, 성별, 태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인정하면 검열, 조롱,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다. 이사야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이사야 5:20)라고 경고했다. 지금

이 바로 그 상황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을 뒤집어 놓았고, 빛을 어둠이라 부르고 어둠을 빛으로 찬양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3:6).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말한다. 그것이 인기가 없더라도 말이다. 흔들리는 문화적 도덕 vs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문화적 도덕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 칭송받던 것이 내일은 비난받는다. 감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살인, 성적 율리, “연민”이라는 이름의 불법 정당화 등 수없이 바뀌는 잣대는 혼란만 낳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에 커크가 성경에 모든 것을 기초했던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문맥 왜곡: 공격의 전략

커크의 비평가들은 그의 발언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왜곡하곤 했다. 그가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대해 한 언급은 차별로 몰렸으나 실제로는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지적이었다. 또한 제2차 수정헌법(총기 소유권)에 대해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할 때, 그것은 생명에 무심한 태도로 왜곡되었지만 그는 동시에 희생을 비극으로 규정했다.

성경조차도 이런 식으로 왜곡되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시편 91편을 인용했지만 문맥에서 벗어나 있었다(마태복음 4:6). 오늘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공격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진리가 사랑인가

예수님은 “조용히 있으라,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고 하셨다. 세상은 진리를 증오라 말하지만, 진리의 부재야말로 가장 잔혹한 증오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 (에베소서 4:15)을 명령한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번 주 로이터 보도에서, 커크와 관련된 발언으로 정직 휴직 처분을 받은 법학 교수의 사례는 문화가 얼마나 엄격하게 발언을 검열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성경조차 증오로 낙인찍힌다면 우리 역시 같은 적대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뒤집힌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기

세상은 우리를 “증오자”라 부를지 모르지만, 사실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이다. 찰리 커크는 그것을 담대하게 실천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의 옹호는 진정한 기독교가 죄를 눈감아주거나 진리를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자비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임을 다시 일깨워준다. 찰리처럼 우리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경적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최승연 기자

트럼프, 찰리 커크 추모식서 한국 거론 국민의힘 “자유 수호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격으로 사망한 보수 청년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애도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커크 추모식 추모사에서 “찰리 커크의 유산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다”며 가장 먼저 캐나다 캘거리와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군중이 성조기를 흔들며 ‘찰리 커크를 지지한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이어 베를린, 마르사바, 시드니, 파드리드 등 세계 각지에서 추모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커크를 “미국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고 표현하며 “역사도 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딥진 좌파’를 지목하고 “국가를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해 자신이 총격을 당했을 당시 외쳤던 “싸우자(fight)”라는 구호를 다시 언급하며 결의를 다졌다.

찰리 커크는 터닝포인트USA 공동 창

립자로, 미국 최대 규모의 청년 보수 단체를 이끌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활동해 왔다. 그는 지난 10일 유타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향년 30대였다. 생전에 한국을 방문해 “외국인이 적은 한국 사회는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가(MAGA) 진영의 차세대 주자인 그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빈다”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소신을 용기 있게 외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정치보복과 억압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한국 보수 진영 모두에 충격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각각 커크를 기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9)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톨릭)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야간예배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목요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3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배변은 숙면제거와
먹으면서 제충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방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살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언더우드대학교 다양한 전공 교수 초빙

언더우드대학교(총장 리차드 윤)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교수를 초빙한다. 언더우드대학은 조지아 주 스와니에 본교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와 부에나 파크에 각각 분교를 두고 있다.

교수 초빙 분야는 경영, 경제 분야 (경영학, 마케팅, 경제학, 금융학, 회계학), 신학 분야 (성서학), 스포츠 분야 (스포츠 행정 및 경영, 태권도), 조리, 식음료 분야 (조리학, 제과/제빵학, 커피 바리스타학), 영어 교육 분야 (영어교육 ESL) 그리고 예술 분야 (순수미술/회화) 등이다.

자격 요건은 박사 혹은 석사 학위자로 박사 학위자를 우대하며,

커피/바리스타학, 조리학, 제과/제빵학은 학사 학위자도 지원 가능하다.

이중언어(영어,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하며, 캠퍼스 근무 혹은 온라인 강의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 (CV) 제출 (지원 전공 명시)과 인터뷰로 진행된다.

접수 및 문의는 770-831-9500, lpark@underwood.edu 앤더슨 김 기자

UNDERWOOD UNIVERSITY

Full-Time / Part-Time 교수 초빙

아틀란타
Suwanee, Georgia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California

오렌지 카운티
Buena Park, California

We Are Hiring!

경영 • 경제 분야 Business & Economics

- 경영학 MBA / Business Administration
- 마케팅 Marketing
- 경제학 Economics
- 금융학 Finance
- 회계학 Accounting

조리 • 식음료 분야 Culinary & Hospitality

- 조리학 Culinary Arts
- 제과 / 제빵학 Baking & Pastry Arts
- 커피 바리스타학 Barista Studies

영어교육 분야 English Education

- 영어교육 ESL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신학 분야 Theology & Christianity

- 신약학 Biblical Studies

스포츠 분야 Sports & Martial Arts

- 스포츠 행정 및 경영 Sports Administration & Management
- 태권도 Taekwondo Studies

예술 분야 Fine Arts

- 순수미술 / 회화 Fine Art / Painting

자격 요건 Qualifications

- 박사 학위자 우대 (석사 학위자 지원 가능) (Ph.D. preferred, Master's accepted)
- 커피 바리스타학, 조리학, 제과 / 제빵학은 학사 학위자도 지원 가능
- 영어 & 한국어 가능자 우대 (Bilingual in English / Korean preferred)
- 캠퍼스 근무 또는 온라인 강의 가능자 (On-campus or Online teaching)

지원 방법 Application Process

- 이력서 (CV) 제출 - 지원 전공 명시
- 인터뷰 진행

접수 및 문의 Contact

- 770.831.9500
- lpark@underwood.edu

www.underwood.edu

성경, 빅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의 세미나가 10월 20일 (월)과 21일 (화) 오렌지 카운티의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에서 열린다.

대상은 목회자, 선교사, 사모, 전도사임이며 신청은 10월 10일까지, 전화, 카톡, 이메일,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세미나는 무료이다.

저자인 김인식 박사는, 전쟁과 지진, 전염병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큰 계획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석한다(막13:8, 눅21:11).

그는 이 시대의 징조를 '해산의 고통'이라 해석하며, "성경을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빅 픽처'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세

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편의 위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 속 부흥과 선교의 물결은 언제나 새로운 성경적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깨달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는, "바쁘시겠지만,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 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김인식 박사는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33년간 목회했으며, 미주장신대 겸임교수, 킹덤윌드미션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

김민선 기자
〈성경, 빅픽처를 보라!〉 세미나
일시 10/20일-10/21일(월-화)
오전 9:30 ~ 오후 5:00

장소: 갈보리선교교회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신청: 김용자 사모 (818)825-1764, 문자, 카톡ID: glovic,hisjoy123@gmail.com
신청 링크: https://forms.gle/PBy2ebofraqjDKj4P8
마감: 10월 10일까지 (선착순 50명 "성경 빅픽처를 보라!" 증정)

주해홍 목사, 연대기 해설 성경 북 콘서트

90일 통론통독 사역으로 알려진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상임대표 주해홍 목사)이 『연대기 해설성경』을 출간하고, 지난 9월 20일(토) 오전 10시 30분 LA FACE MART에서 기념 북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해설성경은 성경을 연대기 순서로 배열해 큰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지도, 연표, 도표 등 다양한 자료를 컬러로 수록해 통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적용적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돕는 실천 중심 해설

이 특징이다.

편저자 주해홍 목사는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설립자이자 상임대표로, 목사 안수 20주년을 맞아 45년간의 성경교사 경험을 이번 책에

담았다. 북 콘서트에서는 출간을 축하하며 성경 통독 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문의: (213) 215-1310 / (562) 569-1189

통론통독 사역의 주해홍 목사가 '연대기 해설 성경'을 출간하고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농아버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글을 쓰는 사람은 늘 글감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글 쓰는 사람에게 글감은 단순한 소재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반영입니다. 어떤 이는 길가에 핀 들꽃에서 글감을 발견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연히 스친 사람의 한마디에서 이야기를 길어 올립니다. 글감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읽는 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젊음과 나이들, 그리고 침묵과 고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만난 글감은 “농아버림”입니다. 농아버림, 농아준, 내려놓음이 제 마음 속에 맴도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놓아주어야 할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농아버림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

버림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농아버림은 비움을 의미합니다.

꼭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좋지만 우리 마음 그릇에 좋지 않은 것도 담겨 있습니다. 마치 손톱을 잘라도 다시 자라듯, 안경을 닦아도 다시 먼지가 묻듯, 마음에도 좋지 않은 것이 쌓입니다. 비움이 있을 때 채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빌 2:7). 예수님의 비우심은 깊고 오묘한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는 먼저 비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채우시기 전에 비우신다. 만족하게 하시기 전에 굶주리게 하신다. 높이시기 전에 낮추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그릇이 집착과 두려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영혼의 그릇을 비울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둘째, 농아버림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농아버림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執着)은 어떤 대상, 생각, 관계, 혹은 어떤 욕망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상태입니다. 집착하면 과도한 에너지를 쏟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며 오직 집착한 것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집착은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과 조급함을 낳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집착은 자신과 상대방을 가두어 두는 상태입니

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성숙한 사랑은 뿌리와 날개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리처드 로어는 “내려놓음의 길은 잃는 길 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눈이 열려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집착은 쓰레기를 낳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시몬 베유는 “집착은 환상을 짜내는 큰 직공이다. 현실은 집착을 놓은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농아버림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농아버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보호하는 것 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더욱 안전합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애착을 넘어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삭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안전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삭이 그의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순간, 그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 빈손에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창 22:17).

넷째, 농아버림은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 것은 흐름을 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농아버림은 무조건 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농아버림의 지혜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되는 것을 따라 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농아버림은 삶이 흐르도록 허락하는 행위다. 놓을 때 삶은 저절로 흘러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는 놓아줄 때 치유됩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아 부인은 자기 소멸이나 멸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농아버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꽃이 떨어지는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농아버림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유철 칼럼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화요일 교육국 주관 제13차 2025년 성경암송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총121명, 99팀이 참가신청을 했고 116명, 94팀이 참석하여 총 100명, 78팀이 합격하였습니다. 합격률이 높아서 상급도 작년보다 약 25.8%나 증가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은혜와 성도님들의 헌신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요 아깝지 않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비책을 알려주시지 않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수1:8)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책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암송입니다. USC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영성가로도 많은 업적을 남긴 댈러스 윌라드 교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암송은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댈러스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하며 평생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던 척 스윈돌 목사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암송보다 더 도움 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며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어 것이다. 생각은 깨어 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담대함이나 확신은 높아지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는 글을 썼습니다.

성경 암송은 주님과과의 동행을 이루고 그



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최고의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인데, 성경 암송은 그 길을 열어줍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감사가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죄성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영의 무기,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엡6:17)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은 광야에서 원수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오직 한 가지, 암송하고 계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성경암송은 나와 공동체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다니엘서6~12장, 예언 부분을 암송하는 쉽지 않은 대회였음에도 윤에스터 전도사, 권현아 권사, 김영빈 청년이 여섯 장 전체를 다 암송했습니다. 다섯 장은 박용숙, 오금미, 이용분 권사가 암송했습니다. 도전자 중 최연장자 김종숙, 김순기 권사와 합격자 중 최연장자 박혜원 권사는 모두 8학년(?)의 모범생들이었고, 암송자 중 최연소는 유년부 최성호(9세)어린이로 두 장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중 최연소, 영아부의 최승리(2세)어린이는 십계명을 다 외었습니다.

성경암송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온 세대가 함께 해야 할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년도 암송은 수요일에 때 강해하고 있는 디모데서를 계획하는데, 모두가 믿음과 소망으로 암송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람!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곡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커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9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복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로 찾아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 내 혼자서 잘 할수있나?"

"그라몬!
누구 아들인데!"

미국 LA 공연



조혜련 | 조지환 | 정지환 | 유민정 | 엄대 | 이서주 | 김연수

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

downeytheatre.org

Sunday
10.12 — 7pm

Monday
10.13 — 2pm, 7pm

Ticket
\$50 | \$60

(213) 357-1565
(562) 766-9494 (text)

주최
주관

**LOVING
FORSHIP**



목동 칼럼

비전 50 선교회 고난의 시간과 Paradigm Shift!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지난 글에서는 20여년전의 비전 50 선교회가 만주벌판에서 진행한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의 출발을 나누었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중에 열사다이의 선교전략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비전 50과 동역을 하던 조선족, 한족 목회자들이 중국 곳곳으로 - 허드슨 테일러의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선교회)”와 같이 내지 선교사가 되어 중국 서쪽의 성도 Chéngdū, 충칭Chóngqīng, 시닝 Xíníng 과 중국의 남쪽의 난닝 Nánníng, 귀양 Guǐyáng, 계림Guǐlín, 쿤밍 Kūnmíng, 심지어 최고 남단의 해남도 Hǎinán 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대로 중국교회는 지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1920년대 부터 ‘백투 예루살렘’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었다. 혹자는 이를 신학적으로 과장된 중국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100년 전부터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세계선교 완성에 동참하는 비전을 공산주의 치하의 고난중에도 멈추지 않고 성실히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한 비전의 근본이 있기에 비전 50의 세계선교의 비전을 나누었더니, 중국의 한족 목회자들도 우리들과 동역자가 되는 것을 죽마고우를 만나듯 반가워하였다. 또한 열정적인 비전 50의 동역자들이 되었다. 그리하여 비전 50 선교회는 중국의 곳곳의 중요도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동역하는 그룹들로 탄생이 되어졌다.

필자 교회의 지난날을 회고해 본다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확산은 우리들이 크나큰 고난과 변화의 시점 한 중간에 놓여있었던 시기였다. 2005년도에 새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고, 2008년에 입당하기전인 2007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서 너무나 힘겨운 시기였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기도 압박이 큰 시점임에도 필자의 교회는 단기선교팀을 해마다 파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2008년 7월 14일에는 비전 50 중국 선교회가 형성되어 1차 비전 50 선교사대회가 광시성 난닝에서 출발되었다. 우리들이 엄청난 난관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경제적 위기가 가득한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2008년을 비전 50 역사에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의 원년으로 삼아주셨다. 이후 비전 50 중국선교회는 2010년 귀주성 귀양에서 다시 열렸고, 교회는 비전 50 중국선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선교팀을 해마다 중국에 파송하였다.

또한 필자가 몸담았던 교회는 2011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비전 50 선교운동의 최초 멘토가 되는 윤일흠 목사님의 은퇴였다. 그리고 부목사였던 필자가 담임목사로 섬기게 되었다.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속에서도 필자의 교회는 비전 50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냉혹하였다. 2008년 초에 새예배당에 입당을 하였지만, 건축으로 인한 재정적 후폭풍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교회 경상비에 많은 압박이 생겼다. 결국 많은 스태프들의 페이 데이가 한 두주씩 늦어지기 시작하였다. 교회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 교회 내부의 활동들은 위축이 되었다.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들을 교회에 청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갑을 열어 지불하였다. 필자 역시 자비량 원칙의 선교였기에 크레딧 카드는 신용불량이 될 수 있는 정점을 찍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위기의 시간에 교회는 내부적으로 진정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거듭나는 산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회 내부의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야유회 등등, 교회 내부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미미하기에 많은 임원들이 선교를 멈추고 교회 내부 살림 살이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필자는 건축을 위한 모기지를 갚느라, 규모가 많이 확장된 건축뒤에 각종 고정비용과 관리 비용의 엄청난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며 마음이 무척 아팠다. “오죽하면 선교비 지출을 중지하자는 요청을 하였을

까...?”하며 마음이 괴로웠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에 후원하던 많은 현지인 내지 선교사들은 \$300로 한 달 생활을 할때였기에 당장이라도 후원을 중단하면 중국 변방의 내지에서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 확히 보였다.

그래서 힘겨워 하는 성도들에게 필자는 아픈 말을 하며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다. 필자는 성도들에게 호소했다. “여러분, 교회는 멤버십 클럽 하우스가 아닙니다. 내가 기부한 돈으로 친교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때로 나는 불편하더라도, 때로 나는 굶더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만 하는 구조 대입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 필자는 많은 원성(?)을 들으며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어야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비전 50 중국 본부는 중국 전역에서 한족, 조선족 목회자들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이끌어 주었다. 그리하여 2012년 3차 비전 50 선교사대회가 장수성 수첸에서, 2013년 4차 비전 50 선교사대회가 베이징에서, 2014년 5차 비전 50 선교사대회가 윈난성 쿤밍에서 점점 더 부흥되고, 조직화된 모습으로 중국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 원망(?)하였던 분들이 오히려 비전 50 선교에 핵심 멤버들이 되어 동역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목사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성하는 뫼비우스 띠의 제일 끝단이 이어지는 미라클의 시간이 될 수가 있음을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

〈다음 회에 계속〉

오묘한 목사 강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전호에 이어서〉

수백 마리 양이 있는데 목자를 따라잡니다. 양들이 한 줄로 서서 계속 따라잡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 믿고 따라잡니다. 골짜기를 지나 초원으로 가면 신바람이 납니다. 기쁜 마음으로 골짜기를 내려갑니다.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푸른 초장에 가서 기뻐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을 거역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그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이스라엘을 살피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의 열성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주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 의가 있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의가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4. 아버지여, 돌아오시옵소서

16-19절을 보면 이사야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와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불효막심한 아들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은 어머니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

를 잊지 않으십니다. 옛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진노하고 책망하실 때도 여호와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습니다. 지금 긍휼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결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떠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줄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

어야 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탕자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고하게 하사 경외치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속자 되시고 중보자 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이뤄진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체,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 복음을 회복하라

복음주의 바리새인, 그 위선의 누룩을 벗기다



복음주의 바리새인

마이클 리브스 | 송동민 역
복있는사람 | 168쪽
11,000원

“이 책은 위선이라는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시대 교회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전이다.”
박영돈,
토머스 R. 슈라이너 추천

바리새인의 가면을 벗고 싶은 이들을 위한 복음 치유 수업

종교 생활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을 삼위일체 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복음적 처방을 제시한다

2마이클 리브스의 <복음주의 바리새인>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와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바리새주의의 함정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그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음을 강조하며, 참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리브스는 바리새주의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영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한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기독교의 본질적 세 교리, 즉 성경관, 구원에 대한 이해, 거듭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복음주의의 내에 뿌리내린 바리새주의를 분석한다.

바리새인들은 외적 경건과 형식에 집중했지만 내면의 변화, 즉 성령을 통한 거듭남에는 무관심했다. 리브스는 복음주의자들도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청결함에 집착하면서, 진정한 내적 변화와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는 “복음의 본질보다 형식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바리새주의가 결국 교회를 죽이는 종교로 변질시킨다”고 말한다.



▲자코포 로부스티(일명 틴토레토, Jacopo Robusti, Tintoretto)의 '바리새인 집에 가신 예수 (Christus im Hause des Pharisäers)'.

1. 그릇된 성경관: 계시의 오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열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을 멀리했다. 성경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해석의 권위를 자신이나 특정 집단에 부여하는 오류에 빠졌다.

리브스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성경 지식 자체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기 쉽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복음주의 바리새인의 증상과 폐해를 고발한다. 그는 바리새주의의 가장 심각한 폐해로 ‘교만’을 꼽는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타인을 정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성경과 신학 지식조차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그 결과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회철한 무덤’이 되고 만다.

경 지식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나아가 성령의 역사로 내면이 새로워지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복음 이해는 신자들이 자기 의와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게, “나는 세리처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바리새인처럼 내의에 집착하는 사람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복음만이 병든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에 다시 매료될 수 있음을 힘주어 외친다. 자신 신앙의 진정성을 돌아보기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2. 왜곡된 구원관: 구속의 본질을 잃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구원의 본질을 잃었다. 그들의 열심은 자기 의와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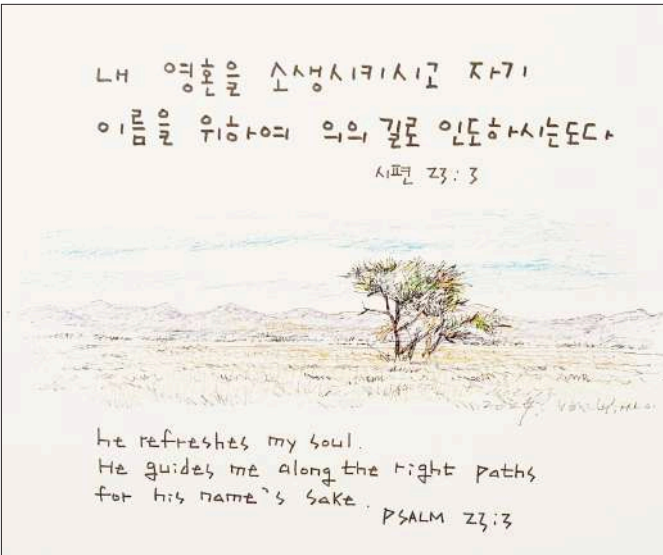
복음주의자들 역시 “내가 옳다”는 확신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인정욕구를 위한 것일 때, 바리새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리브스는 지적한다.

이러한 바리새주의는 교회 안에 위선과 두려움의 문화를 조성하고, 진정한 영적 생명력을 앗아간다. 신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열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리브스는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gospel integrity)’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리브스는 바리새주의의 치유책으로 ‘복음의 삼위일체적 본질’ 회복을 제시한다. 그는 계시(성부), 구속(성자), 거듭남(성령)이라는 복음의 세 핵심 요소를 강조하며, 신자들이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붙들 때 참된 개혁과 영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즉 성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귀국자동차 운송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문로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북한 체제 예술과 기독교 미술가들

신앙의 자유 찾아 월남했던 그 시절 기독교 미술가들

해방 후 北 살던 기독 미술인들 종교 탄압, 표현의 자유도 위협 홍종명·김학수·박수근 등 월남 전재민과 경계인 고충 있었지만 근면성과 탁월성으로 성공 거둬 한국 미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

6.25 전쟁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민족 이동이 발생했다. 남의 화가들이 북으로 올라가거나 강제 연행됐고, 반대로 북의 화가들이 자유의 땅을 찾았다.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 총공세에 밀려 1.4 후퇴가 촉발됐는데, 그때 북한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함께 많은 미술가들이 월남했다.

왜 그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남한을 찾았을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보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탄압을 가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독교가 “노동대중 속에 종교적 환상과 노예적 굴종의 사상을 퍼트린다”(심일섭, “북한의 종교정책과 기독교신앙운동”, 『기독교사상』, 1975년 6월호, p.92)며 기독교를 사상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인을 반동계급으로 분류해 교육적 불이익을 줬고,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재산까지 몰수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숙청, 불법 감금, 고문, 추방, 살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독교인을 핍박했다.

해방 직후 지주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토지개혁과 이에 반대하는 지주들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다. 일생동안 피압을 흘려 장만한 토지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피해는 북한의 기독교 미술인도 면하기 어려웠다. 미술인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을 받은 데다 표현 자유의 권리마저 위협받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 정책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둔다면, 공산주의 체제에선 문화 활동에 대한 간섭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이런 특성은 정치와 예술을 분리시키지 않는 ‘사회주의 예술’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여기서 예술가들은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당 정책을 만드는 선전대 역할을 한다. 양국주에 따르면, 6·25 전쟁 전에도 민족 해방의 은인이라며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무려 9만 점이나 그렸고, 1946년 한 해에만 25만 점의 선전화를 그렸다고 한다(“북으로 간 화가들”, 월간조선, 2010년 6월호). 심지어 대학조차 공산주의 체제선전의 기지로 이용됐는데, 1947년 개교한 평양미술전문학교(후에 평양미술대학으로 개칭)에서는 김일성 동상이나 대형 모뉴먼트, 선전탑, 플래카드 등을 제작했고, 조형연구소를 정치선전 목적으로 활용했다.

북한의 예술가들은 스탈린, 김일성 초상화를 그리고 모뉴먼트를 만드는 등 당의 나팔수 역할을 강요받았으나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중에서도 기독교 미술가들의 입장은 더 곤란했다.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예술의 자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과 표현의 권리에 대한 갈구가 이들의 북한 탈출을 앞당기는 요인이 됐다.

홍종명(1922-2004)은 일제시대부터 철저한 기독교 집안으로 부친이 교육자이면서 감리교회 장로인 데다가, 장인 또한 이피득 목사로 공산당 세력에 대항해 일제 때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던 감리교 서부연회를 재조직하는 데 힘썼다. 그의 집안은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였고, ‘요시찰 대상자’였다. 홍종명 또한 만만치 않았다. 공산당은 그에게 선전화를 강요했으나, 일본 동경제국미술학교까지 졸업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만 그렸다. 그 바람에 반동 세력으로 몰려 교사생활은 물론 작품 활동까지 막혀 버렸다. 홍종명은 국군의 평양 탈환 이후 얼마 안 되어 국군과 UN군이 퇴각할 때 아내와 두 남매 아이를 데리고 월남했으나, 노부모와 다섯 살짜리 장녀를 남겨 놓음으로써 기억 없는 헤어짐이 되고 말았다.

김학수(1919-2009) 역시 성화신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는데,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 여파로 교장이 납치되고 학교는 폐교됐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도 김학수는 동양화 화론과 화법 교과서인 ‘개자원 화보’를 보며 그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전쟁이 발발하고 주위 인사들이 검거된다 는 소식이 들려오자 ‘나도 혹시 잡혀갈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평양 탈환도 잠시, 재차 전세가 위급해지자, 더 이상은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후퇴하는 국군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다. 월남할 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아내와 두 아이로 인해 ‘가장 큰 죄인’이 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어 산다고 고백하였다. 박수근(1914-1965)은 정치 노선으로 탄압을 받았다. 박수근이 출석한 금성감리교회 노복회자 한사연 목사는 조선민주당 지역 책임자로 박수근을 추천해 지방 인민위원회 금성면 대의원으로 당선시켰다. 핍박은 그 이후 한층 노골화됐다. 북한면 박수근을 불법으로 연행해 취조를 하는 등 괴롭혔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야수의 본색을 드러냈다. 박수근은 낮에는 산 속에 들어가 지내다 밤이면 집으로 내려와 지내야 했다. 보위부 군인들은 가족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온갖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박수근과 일가족은 이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남행길에 오르게 됐다.

황용엽(1931-)은 6.25 전쟁 발발 후 지하 생활, 평양에서 인민군이 후퇴할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인사들과 기독교인들을 사살하는 장면, 지하실에 집단 감금당했을 때의 기억, 또 월남 후 국군에 입대하여 중부전선에서 전투중 총상을 입었을 때의 충격, 평양 집 어머니와 형제들과의 아쉬운 이별 등 그의 기억 밀바닥에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을 간직하고 있다.

해방 전까지 그의 집안은 넉넉하게 살았지만, 김일성이 들어서면서 땅과 재산을 빼앗겨 가세가 기울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보파리 장사에 나섰다.

그에게는 친어머니와 함께 갓난아이 때부터 길러준 유모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유

망 절제 수술로 수유를 못하게 되자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동네 행상 한 분이 황용엽을 살린 것이다. 기독교 사랑으로 극진히 키워준 유모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월남 작가들에게 6.25 전쟁은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다. 피난길에 포격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이별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충격은 그들의 삶에서 아물지 않는 상처로 자리잡았다.

6.25 전쟁은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허황된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악행의 표본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작품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감상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처절한 상흔(傷痕)을 대하는 것이요 비극적 시대상을 접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의 중요함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된다.

그들은 남한에 와서도 전재민(戰災民)과 경계인(境界人)으로서의 또 다른 고충에 의해 압박당했다. 그러나 월남한 기독교 미술가들은 남한에 와서도 근면성과 탁월성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았고, 한국 미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전후 미술계의 이해에 있어 그들을 빼놓고 논의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높으며 괄목할 만한 예술적 유산을 남겼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교육 및 중고등부 풀타임 사역자를 찾습니다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Is looking for A Full-time Education and Youth Pastor

- **지원 자격 Preferred Qualifications:**
 1. 기독교 교육과 중고등부 사역에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Experienced with Christian education and youth ministry
 2. 정규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Graduated Seminary with Master of Divinity Degree or Ordained Pastor
 3.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Eligible to Work in US
- **제출 서류 To Apply:**
 1.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 문 Resume (Including a Picture) and Statement of Faith
 2. 최근 설교 링크 또는 파일 Recorded Sermon Link or File
 3. 신학교 졸업 및 안수 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and Ordination.
 4. 추천서 2통 Two References
- **접수 마감일 Application Deadline:** 2025. 11. 24
- **보내실 곳 Address:**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C 27612
pastorlee7@yahoo.com
- **서류는 이메일(PDF)로 보내셔도 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Application documents can be submitted in PDF format
All submitted paper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 **이상현 목사 Rev. Sanghyun Lee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랄리한인장로교회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기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찰리 커크의 죽음, 영적 전쟁의 본질 드러낸 사건”

이태희 목사(리바이벌코리아 대표, 그안에진리교회 담임)가 찰리 커크 미국 터닝포인트 USA 대표가 최근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오늘날 문명사의 전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21일 그안에진리교회 주일예배에서 ‘암살론의 반역과 찰리 커크의 죽음’(삼하 15:1~3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암살범은 22세 청년 타이러 로빈슨(Tyler Robinson)으로 밝혀졌다. 그는 트랜스젠더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스펜서 콕스 유타주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좌익 이데올로기에 깊이 세뇌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그의 범행 동기가 찰리 커크가 꾸준히 전해 온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메시지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찰리 커크가 이끌던 ‘터닝포인트 USA’는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인 복음과 기독교 보수주의의 가치를 전파해 온 청년 운동 단체였다.

이 목사는 “찰리 커크는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과 자유, 거룩한 성윤리를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탁월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고 했다.



故 찰리 커크. © Turning Point USA

진리 말했던 커크, 총탄으로 쓰러뜨려 성경적 진리 외치는 자들 극우로 매도 가정·신앙·자유 등은 극단 이념 아나 하나님 말씀, 인류 문명의 보편 진리 그것 부정·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극단 그의 죽음, 영적 전쟁 단면

그는 “조지 오웰의 말대로 ‘사회가 진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회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법’”이라며 “(찰리 커크를)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지자 결국 총탄으로 그를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 행위는 오히려 찰리 커크가 옳았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말

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사람들은 그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그들이 혐오하는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찰리 커크는 복음을 혐오하는 자들의 손에 죽은 스테판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혐오했던 로마제국의 손에 죽은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목사는 “비록 커크는 31세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혐오했던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생명의 존엄과 창조 질서, 복음은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커크가 주도한 운동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회복하자는 운동, 곧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자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었다.

그는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 운동이기 이전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 사회 전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신앙적 실천이요,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 속에 머물러 있다”며 “신앙을 개인의 내면적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정책과 문화를 지지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 보수주의 5대 원칙’을 ①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②가정과 결혼의 신성함 ③신앙과 표현의 자유 ④사유재산과 노동의 가치 ⑤법치와 정의로 제시했다.

그는 “오늘날 성경적 진리를 붙들고, 건국의 신앙과 자유의 정신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세상은 ‘극우’라고 매도한다”며 “그러나 성경적 가치, 곧 생명·가정·신앙·자유·법치·애국심은 결코 극단적 이념이 아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세속주의자들에게나 극단적으로 비취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문명을 떠받쳐 온 보편적 진리이며, 미국과 서구 문명의 변형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며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찰리 커크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펼쳐지고 있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빼앗으려는 도둑’, 곧 사탄 마귀 사이의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라며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 전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최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주권을 담대하게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프랭클린 그레함 “찰리 커크의 죽음, 복음 전파 오히려 확산시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사마리아인의 지압 대표)가 최근 암살된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사건을 두고 “좌파가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기독교인들에게 커크

의 본을 따라 두려움 없이 신앙을 증언하라고 당부했다.

그레함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암살자의 의도는 분명히 실패했다”며 “좌파가 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나서고 공격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군대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커크는 지난 9월 10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유타주에서 연설 도중 22세 남성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현지 언론은 범인이 좌파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함 대표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은 공격을 받고 있다”며,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라는 용어 역시 좌파가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낙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커크의 공개적인 복

음 전파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사망 11일 전 남긴 트위터 글을 언급했다. 당시 커크는 “이번 주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라”고 당부했으며, 그레함 목사는 “커크의 죽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야기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찰리 효과(Charlie effect)’라 불리는 현상이 보고되며, 커크의 피살 직후 교회 예배 참석

자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함 목사는 미국이 부흥의 기로에 서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 성적 쾌락, 술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전부였다고 고백했고, 그 진술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끝으로 “찰리 커크는 그의 믿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투우만수,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A/S 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생명보험 때문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 리빙베네티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시카고에 살고 있는 카니입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너무도 억울해서입니다. 아는 교회 집사님이 보험을 시작했다고 해서 3년 전에 교회에서 몇분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팬데믹 직후에 여러가지로 불안한 시기를 경험했던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 50만불짜리 저도 50만불짜리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리면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살아서도 쓸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 보험 증서에 제가 암이라고 써서 동그라미까지 쳐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런 좋은 기능이 있구나만 생각했지 제가 진짜 암에 걸려서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후 딱 2년 후 작년 12월에 남편이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 집안에 암 내력이 없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더니, 저희 보험은 암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하네요. 분명 저와 제 남편이 들었던 기억,

까지 키모도 4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키모는 1번은 남겨 놓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신체적 고통 때문에 힘든데 여기에 더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지금 9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저희 4인 가족이 지금 길바닥에 나 없게 생전 점 때문입니다. 남편은 미국 인쇄소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었는데 암 수술부터 지금까지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을 조금 했던 것 가지고는 생활비는 물론 모기지 내는 것도 정말 빠듯한 수준입니다. 저도 일을 좀 더 늘리고, 지금까지 저희 시댁에서 조금 보태주고, 저도 진정에서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고 있지만 생활비로 쓴 크레딧 카드 빚도 지금 무섭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이 생각나서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이런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저희 보험은 암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하네요. 분명 저와 제 남편이 들었던 기억,

그리고 보험 증서에 메모까지 남겨놓았는데 저희가 잘못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 보험은 사망하면 아이들에게 주거나, 지금 쌓여있는 캐쉬밸류 4,300불에서 찾아 쓰려면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주장하는 거라고 저희 부부의 실수로 돌아가는데 이런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당시에 보험을 들었던 다른 교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저는 말을 했고 이 무책임한 집사님 때문에 몇몇 분은 지금 보험을 취소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 집사님 얼굴 보는 것도 정말 괴롭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저도 보험에 대해서 찾아 보던 중 문선영선생님 유튜브를 만나게 됐고, 리빙베네티에 암 진단을 받으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저희 남편 보험을 문선영님이 해주시는 보험으로 옮길 수도 있을까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니님,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분이 어서 키모를 다 마치고 쾌유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리빙베네티는 말 그대로 살아서 받는 베네티, 즉 내가 살아 받는 사망보상금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보험에 이자를 받고 쌓아 놓은 캐쉬 밸류 안에서 내가 돈을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암/심장/신장말기/ 뇌졸중 같은 중병 진단을 받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최대 90%까지 내가 살아서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식사하고 걷고 샤워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용변을 보고 배변 조절을 할 수 있는 6가지 생활 기능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못하게 되는 중병 상황에서 이 리빙베네티를 클레임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보험회사가 다 이 리빙베네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이지요. 대부분 보험회사는 18개월이나 24개월 미만으로 밖에 살 수 없다는 제한부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리빙베네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 보험회사는 사망진단금을 리빙베네티로 받을 수 있지만 중병 케어 상황에서만, 혹은 암 같은 중병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병과 중병케어상황, 시한부 이 세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카니씨께서 남편의 보험을 지금 리빙베네티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보험으로 옮기고 싶다고 문의하셨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돼서 답답하신가요?


9월은 생명보험의 달


내 생명보험도 암진단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도대체 보험에서 돈은 얼마나 자라는지 궁금하세요?


생명보험으로 은퇴플랜을 셋업하면 안심해도 되나요?


9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
나를 위한, 내가 쓰는, 나에게 맞는 생명보험을 위한 ZOOM 세미나

문선영의 머니토크
줌번호 인포메이션은 626-827-9599 로 연락주세요

이미 암진단을 받으셔서 보험을 바꾸는 게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혹시 암치료를 다 받고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단 보통 10년은 지나셔야 보험을 한번 지원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9월은 생명보험의 달이기도 하지요.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라도 꼭 생명보험에 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빙베네티가 있는지, 리빙베네티가 있다면 암같은 중병도 해당되는지, 중병 케어가 필요한 6가지 생활 기능중 2가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꼭 점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리빙베네티로 정말 많은 가정들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사망보상금 보다 더 많은 리빙 베네티 보상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중병이나 중병케어 상황에서 도 우리 스토어를 지원할 수 있는 생명보험의 리빙베네티,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 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미주
1기

W . O . R . L . D . M I N I S T R Y S E M I N A R

Worshiping Dikos Reaching-Out Life-Giving Discipling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

2025년 11월 17일(월) - 20일(목)
달라스 세미한교회



1차 신청: 10월 15일(수) 까지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 20일(목) 목요일 성령집회에배 필수참여

장소 달라스 세미한교회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캐롤튼)
9750 John W. Elliott Dr, Frisco, TX 75034 (노스캠퍼스)

강사 최병락 목사, 이은상 목사, 월드 담당 사역자

대상 만 55세 이하 담임목회자 35명 (회비 \$150) 세미나 중 호텔, 식사 포함 (항공료 별도)

문의 214-433-5347 / semihanwmi@gmail.com

* 연락 가능시간: 화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30분 (Central Time)

신청 QR



월드사역연구소는 21세기 교회 사역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Think Tank로서 교회 사역의 필수적인 예배, 소그룹, 지역사회 섬김, 복음 전파, 제자 재생산 사역을 W.O.R.L.D. Ministry로 구체화 하여 준비된 매뉴얼과 좋은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 시대 어느 교회, 어느 선교지에서든 곧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교회 개척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복음 전파와 제자 재생산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O.R.L.D. Ministry로 함께 나아갈 교회와 목회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큐알코드 & 세미한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세미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세미나 참석 특전: 회원 교회 선정 자격을 드립니다.



월드사역 연구소장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월드사역 미주소장
세미한교회 담임

Special Guest

세미한워십



주최, 주관



W.O.R.L.D. Ministry
월드사역연구소



세미한교회
SEMIHAN CHURCH



강남중앙침례교회
GANGNAMJOONGANG BAPTIST CHURCH



월드사역연구소
소개영상



세미한교회
홈페이지